

오바마·클린턴의 대의원 집계 상황 및 분석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2070명 선출직 대의원 1741 수퍼대의원 329	1915명 선출직 대의원 1624 수퍼대의원 291
48 몬태나 52:35로 오바마 우세(5:21)	203 사우스 다코타는 양측 접전 주장
확보 대의원 합계 (푸에르토리코 포함)	
매직 넘버 당의 후보 지명(최소 2118명) 확보까지 남은 대의원수	
남은 경선 몬태나 사우스 다코타 -선출직 31명·수퍼 16명	남은 경선 두 곳 7대3으로 이겨도, 미결정 수퍼대의원 최소 167명 확보해야 승리 -매케인과의 경쟁력을 내세우며, 오바마 지지 대의원의 전향 촉구
지지후보 미결정 수퍼대의원 205명	
-남은 경선에서 패해도, 미결정 수퍼대의원 최소 37명만 확보하면 승리	

지지후보 안팎한 205명 '마지막 변수'

<수퍼대의원>

●美 민주당 지루한 경선

결국 아직까지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수퍼대의원 205명이 민주당 대선후보를 최종 결정하게 됐다. 1일 미국령(領) 푸에르토리코(전체 대의원 63명) 예비선거에서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버락 오바마(Obama) 상원의원은 힐러리 클린턴(Clinton) 상원의원에게 32%대 68%로 크게 패했다. 오바마는 전체 선출직 대의원 55명 중 17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기 위해 확보해야 하는 최소 대의원 수는 2118명. 오바마는 2일 현재, 이 숫자에 48명만 부족하다(CNN 방송 집계 기준·표 참고). 남은 27명의 경선 몬태나와 사우스 다코타에 걸린 대의원은 모두 47명. 그나마 몬태나는 클린턴이 우세하다. 따라서 오바마가 3일 끝나는 경선에

힐러리, 본선 경쟁력 내세워 물표 호소 오바마는 48명만 더 얻으면 과반 돌파

서 당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을 획득하기는 불가능하다. 오바마는 남은 수퍼대의원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수퍼대의원은 민주당 연방 상·하 의원, 전·현직 주지사, 전직 대통령·부통령, 당 고위간부 등으로 구성된다. 물론 이 수퍼대의원 획득 셈법에서 오바마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뉴욕 타임스는 클린턴이 두 예비선거에서 70%대30%로 압승해도, 205명의 수퍼대의원 중 81%의 지지를 얻어야 승리한다고 분석했다. 오바마는 반대로 18%만 확보하면 된다. 낸시 펠로시(Pelosi) 하원의장은 최근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수퍼대의원은 3일을

전후로 지지 후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빨리 당내 경선을 마치고 11월 본선에 대비하자는 얘기다. 하지만 클린턴의 계산은 다르다. 그는 푸에르토리코에서 '때늦은 대승(大勝)'을 거둔 뒤, "8월 전당대회까지 가겠다"고 천명했다. 또 자신이 ▲캘리포니아·펜실베이니아 주 등과 같이 큰 주이면서 매 대선에서 공화·민주당이 바뀌었다면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에서 강하고 ▲민주당 유권자의 전체 지지 투표에서 앞선다는 논리를 폈다. 클린턴은 "수퍼대의원도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며, 자신의 본선 경쟁력을 내세워 이 미 오바마 지지를 선언한 수퍼대의원

들의 '변심(變心)'을 호소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클린턴이 플로리다와 미시간 주의 대의원을 절반만 인정하기로 한 민주당 당규위원회의 결정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당규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당 전국위의 승인 없이 경선 일자를 1월 15일로 앞당겨 경선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시간 주의 대의원을 절반씩만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클린턴은 자신이 모두 이긴 두 경선의 결과가 100% 반영돼야 한다고, 이 당규위원회 결정에 끝까지 항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클린턴이 이 지루한 경선을 승자로 끝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에게 어떤 조건으로 '우아하게' 퇴장하느냐는 결정만이 남았다. 그리고 그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미 언론은 말한다. 워싱턴=최우석 특파원 wschoi@chosun.com

핀란드, 소비자 참여로 'IT 혁명'

핀란드의 국가 경쟁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2005~2006년은 1위, 2007~2008년은 6위를 차지했다. 비결이 뭘까. 바로 소비자가 참여하는 혁신에 있었다. 핀란드에선 기술 개발단계부터 소비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리빙랩(Living Lab)' 실험이 한창이었다.

'커넥티드 데이' 서비스 개념도



①유치원 교사가 어린이의 생활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
②휴대전화에서 따로 전송과정이 없이 바로 중앙 서버에 저장됨.
③교사가 각각한 설명을 달아 부모의 휴대전화 PC로 사진·동영상 전송.

신제품 개발단계부터 소비자들 제안·평가... '대박 벤처' 탄생 끌어내

지난달 19일 핀란드 헬싱키의 '플레이 앤 러닝(Play & Learn)' 유치원. 주택가 건물 2층에 위치한 원생 40명 정도의 자그마한 유치원 안에서 특이하게도 수업시간에 선생님들이 아이들 사진을 찍기에 열심이었다. 이 유치원은 핀란드의 벤처회사인 '커넥티드 데이(Connected Day)'가 제공하는 사진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유치원 생활 모습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로 찍으면 사진은 바로 커넥티드 데이의 중앙 서버로 전송된다. 유치원 교사들은 이 사진들을 분류해 학부모들에게 전송한다. 부모들은 휴대전화와 자신들의 PC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아이들의 사진을 볼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창업 1년여 만에 미국 실리콘밸리 등 전 세계 유치원 220곳에서 활용되고 있다. 티모 아이리스토(Airisto) 커넥티드 데이 CEO는 "기술 개발 과정에서부터 헬싱키 시내 유치원 20여 곳이 시범 가동에 참여했다"

며 "개발과정 때부터 소비자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창업한 지 1년도 안 된 현재 가입 유치원 수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커넥티드 데이는 헬싱키 리빙랩을 통해 자기자본 없이 창업에 성공했다. 창업 자금 200만 달러는 헬싱키 리빙랩이 추천한 엔젤 투자자들(벤처 투자자들)이 냈고, 기술 개발도 노키아, 핀란드의 이동통신회사 엘리아, 미국의 HP사 핀란드 지사가 맡았다. 21일 헬싱키 인근 예스포 시의 오타니에미. 헬싱키 리빙랩의 일부인 이곳에선 소비자들이 함께 만든 '대박' 벤처가 탄생했다. '왓어맵(What a map)'은 휴대전화에 구글맵과 위키피디아의 정보검색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신개념 휴대용 지도 서비스다. '왓어맵'의 성공에는 1만5000여 명이 이르는 리빙랩 참여자들의 사용 평가가 결정적이었다. 왓어맵사(社)는 한 사용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휴대전화 지도에서 원하는 지점을 선택하면 전화번호와 인터넷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것이 창업 1년 만에 전 세계 기업들로부터 온라인 광고 게재 제의를 받는 핵심적 요인이 됐다. 리빙랩 실험의 성과들은 속속 상품화하고 있다. 집밖 나들이가 힘든 노인들을 위해 쌍방향 TV를 통해 의사들에게 건강 상담을 받는 '케어링(Caring TV)', 네티즌들이 스스로 인터넷 방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채널을 개설해 주는 '플룸스(Floobs)' 등이 대표적이다. 헬싱키-에스포(핀란드)=최현목 기자 search@chosun.com



다음 美 대통령은 왼손잡이?

매케인·오바마도 '왼손'... "멀티태스킹 능력 뛰어나"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존 매케인(McCain)과, 민주당 대선후보로 유력한 버락 오바마(Obama)는 모두 왼손잡이다. 1992년 미 대선에서 맞붙은 공화당의 조지 H. W. 부시(Bush)와 민주당의 빌 클린턴(Clin-

ton) 후보도 모두 왼손잡이었다. 2000년 대선 때 민주당 후보였던 앨 고어(Gore) 전 미국 부통령, 올해 대선에서 한때 무소속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마이클 블룸버그(Bloomberg) 뉴욕 시장과 존 에드워즈(Edwards) 전

상원의원(민주당)도 왼손잡이다. 미국인 전체에서 왼손잡이 비율은 10%. 그러나 미 역대 대통령 중에서 왼손잡이는 전체의 16%인 7명이었다. 제임스 가필드(Garfield), 허버트 후버(Hoover), 해리 트루먼(Truman), 제럴드 포드(Ford), 로널드 레이건(Reagan), 조지 부시, 빌 클린턴 등이다.

이런 경향에 대해, 미 생물학자 야마르 클라(Klar)는 "왼손잡이들은 오른손잡이들보다 우뇌와 좌뇌를 골고루 사용해, 사고의 틀을 깨는 정치적인 감각을 발휘하기 쉽다"고 했다. 영국 런던대 크리스 맥마너스(McManus) 심리학자 교수는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보다 성취도가 더 높다고 주장했다. 왼손잡이들은 어릴 때부터 오른손잡이용 가위를 사용하는 것부터 잉크가 번지지 않게 글씨를 쓰는 것까지 왼손잡이들이 직면하는 모든 문제를 극복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왼손잡이들은 오른손잡이들보다 상대적으로 우측 뇌를 많이 사용하므로 '멀티태스킹(한꺼번에 여러 일하기)' 능력이 뛰어나, 얽혀있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유리하다고 미국ABC 방송은 보도했다. 이혜운 기자 iety@chosun.com

'레드 카펫'에 화난 후진타오

지진현장 방문때 맨땅에 내려... "구호 급한데..." 관리들 질책

중국 쓰촨(四川)성의 대지진 발생 6일째인 지난 5월 17일, 지진 피해지역 관리들의 구호작업을 지휘하기 위해, 후 주석을 태운 특별열차가 피해지역 한 도시의 열차 역에 도착했다. 열차에서 내리던 후 주석은 발 밑으로 무엇인가를 보고 흠뻑 놀라더니, 다시 열차를 운행하라고 지시했다. 열차는 10여m를 더 갔고, 그제야 후 주석은 열차에서 내렸다. 그가 본 것은 '레드 카펫(red carpet)'이었다. 중국을 방문한 국가 정

상들이 비행기나 차량, 열차에서 내릴 때 레드 카펫을 밟는 것은 중국의 의전(儀典)상 관례. 그러나 반(半)관영통신인 중국신문망은 최근 "관리들은 외국 '국가원수'에 대한 의전 관례를 따랐지만, 후 주석은 평소 좋은 일로 지방을 순시할 때도 레드 카펫을 밟지 않는다"고 전했다. 대만 연합보(聯合報)도 2일 "사상 유례없는 열차를 담당해도 관리들은 아무근심(拍馬屁)을 잃지 않고 추태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열차에서 내린 후 주

석은 "지금은 구호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우회적으로 자신의 발 밑에 레드 카펫을 깔려 했던 관리들을 질책했다. 대지진 발생 이후 후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는 2-3차례 피해지역을 방문하며 '민심 수습'에 매달리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선 "구호 물자가 빼돌려지고 있다"며 지역 관리들을 불신하는 민심이 팽배한다. 베이징=이명진 특파원 mjlee@chosun.com

롯데관광 LOTTE TOUR

한국관광 활성화를 선도하는 기업

유럽/미주 여행특집

37년 전통의 노하우를 가진 국내최고 종합여행기업입니다

러시아/북유럽 특선

역사와 대자연이 살아 숨쉬는 곳

미주/캐나다

2008년 최고의 신택 여행

BIG EVENT 7~8월 조기예약 7% 할인

6/7까지 예약 및 예약금 입금자에 한함

프랑스 파리 여행 특선 동유럽 5개국 9일

영국 런던 여행 특선 동유럽 5개국 9일

독일 베를린 여행 특선 동유럽 6개국 11일

스페인 마드리드 여행 특선 동유럽 5개국 9일

신규 항공 취항상품 최대 할인전

대만 항공 관련 여행특선 서유럽 5개국 10일

대만 항공 라인항공 크루즈+호텔 서유럽 3개국 9일

중국 베이징 여행 특선 서유럽 4개국 10일

중국 홍콩 여행 특선 서유럽 4개국 10일

중국 유럽여행의 진수 동유럽 4개국 10일

중국 유럽여행의 진수 동유럽 6개국 12일

중국 유럽여행의 진수 동유럽 6개국 12일

중국 유럽여행의 진수 동유럽 6개국 12일

러시아/북유럽 일주 12일

5,790,000~6,690,000

러시아 일주 6일 2,890,000~3,490,000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발틱 3개국 8일

러시아/북유럽 일주 13일 6,390,000~7,190,000

러시아 일주 7일 3,190,000~3,690,000

북유럽 4개국 9일 3,990,000~5,390,000

터키 항공일주 8/9일 2,590,000~3,190,000

터키/그리스 (메게칼루즈) 10일 3,390,000~3,590,000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바르셀로나 11일 4,090,000~4,690,000

미주/캐나다

2008년 최고의 신택 여행

캐나다항공일주 8일 2,890,000~3,790,000

캐나다항공일주+몬트리올, 퀘벡 10일 3,390,000~3,790,000

알래스카 비행관광+패어팩스 7일 3,590,000

하와이 5일 888,000

미서부 행복일주 8일 1,690,000

미서부 3내개년 8일 1,490,000

미서부 3내개년 8일 1,490,000

미서부 3내개년 8일 1,490,000

미서부 3내개년 8일 1,490,000